

북스

Books

일요일 오후 시간은 왜 빨리 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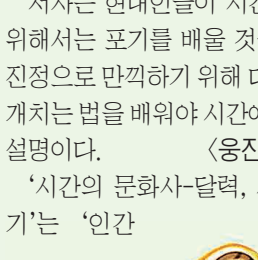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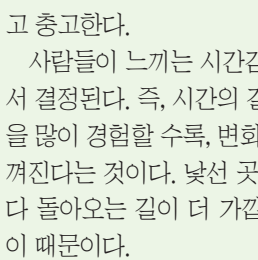
시간의 놀라운 발견 슈테판 클라인 지음 / 시간의 문화사 앤서니 애브니 지음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지만 시간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속도를 방해하는 일상에 쫓기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한정된 시간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시간이란 무엇일까. 공기와 물처럼 사람들에게 익숙지만 시간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시간의 놀라운 발견'과 '시간의 문화사-달력, 시계 그리고 문명 이야기' 두 권의 책은 시간의 기원을 추적하고, 시간의 의미를 천착한 책이다.

유럽에서 학술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슈테판 클라인이 쓴 '시간의 놀라운 발견'은 시간을 풍요롭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길라잡이다. 동일한 살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을 경찰관이 심문한 결과 한 사람은 방아쇠를 당기기까지 약 2초 걸렸다고 증언한 반면, 또 다른 사람은 5분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시간차는 인간의 감정에 따라 차이를 느끼는 '심리시계'로 설명된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왜 고통스러운 시간을 길게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짧게 느끼는 지 설명이 가능해진다. 저자는 시간을 심리적으로 탄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시간의 노예가 아닌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종과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생각과 시간 측정방식을 추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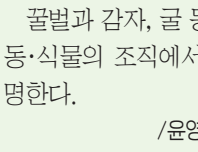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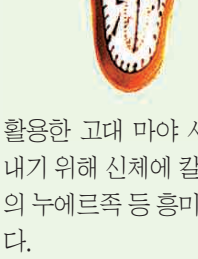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하루는 새벽에서 저녁까지의 변화였고, 한해는 여름에서 겨울까지의 주기였다. 이처럼 고대 로마인들은 시간을 날짜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했다.

이집트인들은 1년 안에 각각 30일인 12개월을 설정했다. 여기에다 5일을 더해 365일을 만들었다. 추가된 5일은 각각 그들이 믿는 주요 신들의 탄생일을 의미했다. 반면, 중앙아메리카의 달력도 1년을 360일로 잡았지만 나머지 5일은 불운한 날들의 집합이었다.

중국인들은 기원전 4세기부터 서기 18세기 사이에 100가지 이상의 달력을 만들었다. 이는 정말하게 1개월과 1년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밖에 시간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고대 마야 사회, 성년식에서 나이를 나타내기 위해 신체에 칼자국을 새기는 아프리카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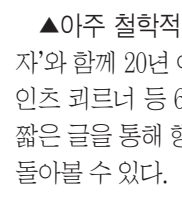
의 누에르족 등 흥미로운 시간의 문화사가 소개된다. **<북로드·2만7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육명심의 문인의 초상**=사실작가 육명심씨가 한국의 유명 문인 71명을 120여컷의 사진에 담고 글을 보탠 책. 1970년을 전후해 찍은 것이다. 서정주, 고은, 천상병, 박목월, 박두진 등을 사진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낸 또 하나의 '문학사(史)'다. **<열음사·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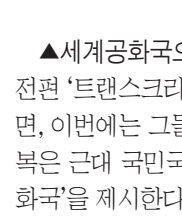
▲**아주 철학적인 오후**=독일 서점가에서 '연극술사', '어린왕자'와 함께 20년 이상 독자들과 사랑을 받고 있는 단편소설집. 하인츠 프리너 등 6명의 작품 13편이 실렸다. 10여 페이지 분량의 짧은 글을 통해 행복, 사랑, 지혜, 어리석음, 욕망 등 가치와 삶을 돌아볼 수 있다. **<조화로운산·9천800원>**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광주 출신 법학자 김육 서남대 교수가 쓴 법 교양서. 저자는 법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생했고 인간 사회의 계급적 모순 때문에 진화해 간다는 사실을 영화, 철학, 역사적 사건 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인물과사상사·1만3천원>**



▲**엄마, 도우줘**=아동법과 전문가 신순갑씨와 작가 이정원씨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방법에 대해 썼다. 폭력 등 범죄에 노출된 어린이·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할 수 있는지, 부모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등을 다루고 있다. **<달과소·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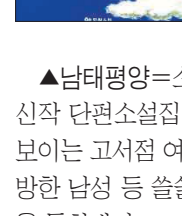
▲**세계공화국으로**=일본의 대표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의 책. 전편 '트랜스크리틱'에서 카르나 마르크스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그들을 뛰어넘는 미래를 말한다. 자본제 사회의 극복은 근대 국민국가의 극복이라고 본 저자는 이를 위해 '세계공화국'을 제시한다. **<도서출판·1만6천원>**



▲**아내의 고물 자전거**=광주에서 활동 중인 작가 이기원씨가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고물상, 신문배달원, 막노동꾼, 청소부 등 등장인물들의 삶은 고달프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더 힘든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지상사·9천원>**



▲**공황에서**=일본의 유명 소설가 무라카미 류의 단편소설집. 2005년 작품. 표제작 '공황에서'는 저자 스스로 "30년 작가 생활 중 최고의 단편"이라고 추켜세운 작품이다. 8편의 소설들은 편의점, 술집, 공원, 노래방 등 장소를 주제로 하고 있다. **<문학수첩·8천500원>**



▲**남태평양**=소설가 김병연씨가 장편소설 이후 8년 만에 낸 신작 단편소설집. 단편소설 6편이 실려 있다. 저자는 뭔가 있어 보이는 고서점 여주인, 가난한 산동네 소년, 사립시험에 열 번 낙방한 남성 등 쓸쓸한 모습의 주인공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불안을 드러낸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토스카나**=스튜디오엘 여행사 '캘리포니아의 작가 김영주'의 두 번째 여행서.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여행기록인 이번 책에서도 여전히 저자는 "느리게 즐기는 여행"을 강조한다. 기자 출신인 저자의 맛깔스러운 글과 현장감 있는 컬러 사진이 책 읽는 재미를 더한다. **<안그라픽스·1만3천800원>**

日 SF작가 호시 신이치 '플라시보' 시리즈 출간



'기묘한 이야기'로 유명한 일본 SF 작가 호시 신이치(1926~1997)의 초단편 소설들을 모아 놓은 '플라시보' 시리즈 3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시리즈의 제목을 '플라시보(placebo·'만족시키다'는 뜻의 라틴어)'로 정한 것은 저자의 책이 다른 모든 것을 잊게 할 정도로 흡입력을 가졌기 때문. '쇼트 쇼트(short short·초단편 소설)'라는 장르를 개척한 저자는 1천편이 넘는 단편을 생산해냈다.

이번에 출간된 것은 '한밤의 숲바람', '여러 갈래 미로', '미래의 이슬우하' 등 3권. 2~10쪽 분량의 짧은 소설 70여편이 담겨 있다. 짧지만 저자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맛볼 수 있다. **<지식여행·각 권 8천900원>**

도시에 바치는 송가(頌歌)

여행자-하이델베르크 김영하 지음



'오빠가 돌아왔다' '빛의 제국'의 소설가 김영하(사진)가 여행을 떠났다. '도시를 사랑하는' 그는 자신이 예찬하는 도시에 바치는 '송가(頌歌)'로 '여행자' 시리즈를 출간했다. 시리즈의 출발을 알리는 책은 '여행자-하이델베르크'편이다. 올 하반기에는 도쿄편이 출간될 예정이며 2009년까지 샌프란시스코·상하이·파리편 등 7개 도시를 방문, 8편의 시리즈로 완간된다.

이번 시리즈는 도시에서 머물며 찍은 사진들과 그 사진을 찍은 카메라에 얽힌 이야기, 여행 단상, 그곳에서 쓴 소설을 묶은 독특한 스타일의 책이다. 특히 카메라 마니아인 저자는 8개의 도시를 각기 다른 카메라로 담아올 예정이다. 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소설 '밀회'부터 들여다



보자. 독일에서 살고 있는 여자와 한국에 살고 있는 남자가 1년에 한번씩, 7년째 하이델베르크에서 재회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일곱 번의 밀회, 일곱 번의 섹스, 일곱 번의 헤어짐, 일곱 번의 거짓말'이 반복되고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물러나온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

남자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소설의 마지막은 조금 쓸쓸하다. 군대 군대 삽입된 하이델베르크 호텔, 흐트러진 침대, 선물가게 사진은 책 속 주인공들이 '진짜' 목했던 호텔일 것 같고, 들렀던 선물가게였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어지는 '내가 만난 하이델베르크'는 그가 직접 찍은 사진들로 채워져 있다. 유명한 풍광 대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둠이 쌓인 거리 등에 포커스를 맞췄다.

에세이 '콘택스 G1과 장 보드리야르'는 니콘 FM2 등 많은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저자가 이번 여행에 가져갔던 콘택스 G1에 대한 단상이다. 몇년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세계적인 석학 장 보드리야르가 콘택스 G1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발견, 행복해 하던 일들이 담겨 있다. 여행에 빠질 수 없는 게 음악. 저자는 책과 어울릴만한 곡을 직접 선곡해 조만간 음반도 출시할 예정이다. **<아트북스·9천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DISH 기품과 중후함으로 완성되는 엔틱의 명품

모디쉬갤러리 Sale

www.modishgallery.co.kr

모디쉬갤러리 오픈 세일 이벤트

30% 오페라 침실세트
장롱, 화장대, 침대(메트리스베도), 협탁
몽블랑 2+2 가족쇼파 (5조완정) 2,900,000 → 1,400,000원
아그네스 2+2 가족쇼파 (5조완정) 3,250,000 → 1,600,000원
황옥 4인 대리석식탁 (5조완정) 1,300,000 → 690,000원
엔틱전환기 (선착순 20명) → 39,000원

미가엘 침실세트 (원경장롱12자+화장대세트+침대(K)4립대)

Open기념 황토침실대, 장수온돌침대 한정판매

HS-6720 비토 1,990,000원 (5조완정판매)
JSD-비토 1,470,000원 (5조완정판매)

미가엘 5인서랍장, 아시아 2.2 소파, 미가엘 화장대, 오메가 대리석 식탁세트

● 홈플러스 ● 홈플러스 ● 홈플러스
● 문정구점 ● 문정구점 ● 문정구점
● 한국형신 ● 한국형신 ● 한국형신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1252-3001~2 / **금호월드 7층** ☎0621350-8764

영어교육의 새로운 대안 **한국고종**

한교 전환영어

기존 학습 위주의 교육방법으로 이론 영어 실력을 실질적인 영어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주기 위해 한교와 우엘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산하의 영어개발기관과 함께 최상의 방법을 개발하여 여러분에게 가시적인 성과와 만족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능력 향상의 최선은 1:1 전환영어수업이다"

매일 원어민과 전화대화를 통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영어공부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영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전환영어 학습법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교전화영어는 고객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원어민 1:1 영어학습법으로 고객의 영어능력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교전화영어의 장점

- 원어민과 1:1 수업, 수업시간동안 지속적인 케어로 학습효율이 높다.
- 일반 학원과 달리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효율적인 영어 학습방법이다.
- 학원에서의 이동시간 절약 및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 수강생의 레벨에 맞는 맞춤 수업이 가능하다.
- 교재외에 레벨별 다양한 Topic 준비, 흥미를 가지고 학습이 가능하다.
- 우수한 원어민 선생님 확보 및 평가시스템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다.
- 영어회화, TOEFL, TOEIC, IELTS 등 다양한 종류의 강좌가 있다.
- 현지직접 시스템을 통해 저렴한 수강비용 체계.

한교 우엘 한국고종 전환영어교육 전문회사
상담 및 문의: **1588-8010**
www.waw05.com

영업사원 모집
문의: 062-526-0509
011-9222-4562